

육바라밀 실천이 생활속 참선

일까. 그 요령은 일을 하면서 6바라밀을 온전히 실천하는데 있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을 피해서는 안됩니다. 일이 곧 삶이 아니던가요. 일속에 보살의 구조한 바라밀이 있으니 성실히, 즐겁게 일을 함에 모든 덕이 얻어집니다. 성실히 일하는 것이 모든 이웃을 이익 되게 하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니 보시바라밀이 성취됩니다. 성실히 일하는 동안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이 단정하고 깨끗해 지게바라밀이 성취됩니다. 성실히 일하는 동안 널리 이해하며 참고 견디는 마음이 이루어지니 인욕바라밀이 성취됩니다. 성실히 일하는 동안 역경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게으름 없이 노력하니 정진바라밀이 성취됩니다. 성실히 일하는 동안 잡념이 없어 일념이 홀어지지 않으니 선정바라밀이 성취됩니다. 성실히 일하는 동안 막히고 힘들 때 지혜를 내어 해결하니 지혜바라밀이 성취됩니다.”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한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지혜가 생길 것이며, 마음에 지혜가 열리면 알아 열립니다. 음욕을 생각하지 않고 미움을 생각하지 않으며 사된 생각을 갖지 않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생각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니 음욕과 성냄이 없게 되어 마음을 깨끗이 하는 도를 얻게 됩니다.”

지혜 스님의 고요하고 차분한 음성은 짧은 말속에 무궁무진한 진실을 담은 듯했다. 인터뷰를 사양하던 스님의 하심(下心)을 상심(上心)으로 만들려 한 필자의 조작심도 스님의 천진(天真)한 무심을 오염시킬 수 없는 노릇이다. 스님이 차를 나누며 들려준 설법도 귀한 법문이려니와 말없는 미소와 행동 하나하나가 법의 문을 여는 선지식의 지혜작용임을 실감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선문답이 아닌, 일상의 용어로 전하는 스님의 선법문에는 ‘평상심이 도(平常心是道)’인 조사선의 도리가 녹아있다.

지혜 스님이 가르치는 참선은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한결같이 바라밀행으로 이어지는 지혜와 자비가 구축된 살아있는 공부였다. 그래서 6바라밀의 실천은 생활속의 참선이 될 수 밖에 없다. “보시로써 복밭을 일구고, 지계로써 심신을 깨끗이 하며, 인욕으로 이 마음 편안히 하고, 부지런히 도 닦으며 정진하고, 항상 마음을 비워 선정을 이루고, 모든 인연 관계 비취 큰 지혜가 납니다.”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닌 도술암의 수행 원칙은 조석 참회예불과 일상속 육바라밀 수행, 주경야선 실천, ‘불조의 원력행(佛祖願行) 학습 등으로 이뤄진다. 새벽과 오전은 참회예불과 참선을 하고, 오후에는 2-3시간 율력을 한다. 스님뿐만 아니라 절에 상주하거나 임시 머무는 대중은 모두 율력에 동참한다. 3천 평이 넘는 맑은 스님과 마을 주민이 무보수로 가꾼다. 절은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이자 일터로서, 수확한 작물들은 함께 나누는 기쁨도 누린다. 최소한의 것으로 근검절약하며 살되, 남은 것은 오직 도량을 장엄하며 사사 공양으로 수행대중을 위호하고, 모든 이웃에 부처님 자비를 회향하는데 쓴다.

이렇듯, 주민은 물론 신도들과 먼 곳에서 찾아오는 불자들을 평등하고 편안하게 대하다 보니 도술암은 어느새 전국에서 소문난 수행처이자 쉼터가 됐다. 병고에 시달리고 실의에 빠진 이들, 어저저 무명(無明)에 사로잡혀 도덕성을

잃고 악업 속에서 고뇌하는 이들, 집착을 버리고 꿈에서 깨어나 바른 길을 찾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두루 찾아와 귀의할만한 곳이다. 하지만, 천상국을 벗어나면 재가불자들은 다시 온갖 경계와 마주하며 결코 만만치 않은 공부로 이어가야 한다. 절에서 공부하던 때의 환희심과 자신감은 또다시 어디로 사라지고 세상사에 끌려다니며 욕망의 노예가 되어 할떡일 수밖에 없는 게 다수 재가불자들의 현실이다. 하기에 바쁜 일상사 속에서 마음공부하는 요체를 여쭙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이 사되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마음이 음탕하려 할 때, 생각이 약해지려 할 때, 생각이 부귀해지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마음을 단속해 마음이 사람을 따르게 할 지언정 사람이 마음을 따르게 하지 마세요. 마음은 사람을 그릇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라한도 되고 하늘도 되며 축생도 되고 지옥도 되고 아귀도 되는 것이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 스님은 수행자는 깨끗한 마음, 사유하는

진실한 언행은 편안한 가정 이루고 깨끗한 마음 밝은 미소 만복을 부르네
정성 모아 이웃 위함이 바로 사람의 길이니 가고 오고 말하는 가운데 본심을 잃지 말라.

지혜 스님이 필자를 배웅하며 건넨 선시집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걸어야 할 지혜의 길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내 앞에 이르러 일 즐거이 정성으로 임하고 무심의 낙에 자유로이 노니소서.”

이와 같은 무념(無念) 바라밀행으로 일하고 설법하며 정진하는 스님의 삶은 필자와 같은 생활인들에게는 구구절절 가슴이 와닿는 생활선법문을 제시하고 있음을 느꼈다. 도술암(www.edosolam.com)의 산사체험법회(매월 셋째 토-일요일)와 계절별 수련법회, 정기법회를 통해 심신을 재충전하고 번잡한 일상속에서도 여유롭게 수행하는 재가불자들이 무수히 쏟아지기를 발원하며 현상산을 발걸음도 가볍게 내려왔다.

김성우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76. 소산 우정상 교수

소산(蘇山) 대선사의 본명은 우정상(禹貞相, 1917~1966)이다. 1960년대 우리들이 동국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가장 패기 있고 명성 있는 교수가 여러분 계셨지만 역사학자로서는 우정상 교수를치고, 교리담당으로는 황성기 교수를 손꼽았다.

“나는 사천 사람이며, 1936년 20세로 양산 통도사 구암 스님께 득도(得度)하고 거기서 강원을 나왔기 때문에 증양불전과 해화전문을 거쳐 일본 교토 임제대학(京都 臨濟大學)을 규경하게 되었습니다.”

선학(禪學)을 전공한 4년간의 유학생활은 소산에게 커다란 사상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당시 임제대학에서 서산 대사의 <선가귀감>을 교재로 학생들에게 선(禪)을 가르친 사실은 소산이 불교학에 매진하게 한 발심의 계

것 같아 고쳐놓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책 더미가 무너지면서 머리가 깨졌어. 주르르 흐르는 피를 지혈시키고 나를 친 책을 찾고 보니 바로 그 책에 그 경전의 원문이 있어 대조해 보니 글자가 틀리지 않았단 말이야. 옛 사람들이 경전을 만들 때는 필수가 있고, 교정인이 있고, 또 증사가



서 13층탑의 사상적 배경을 <원각경> 12보살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명했으며, ‘남한산성 의승군 방변철에 대한 연구’를 발표할 때는 의봉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성급하면 서도 소탈하고, 세밀하면서도 스케일이 광대한만하여 선교양종(禪敎兩宗)을 두루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않을까 생각되었는데, 불행히도 1966년 50세의 젊은 나이에 열반에 들어 후배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이 태왕(太王: 이성계)은 불교 신자다. 어떤 사람은 이 태왕이 배불(排佛)정책을 썼다고 하는데 정도전 처럼 친명파(親明派) 학자들 때문에 배불정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북한산 태고사 태고보우 국사 비문을 찾아가 보니 정몽주, 정도전, 이 태조까지도 태고보우 국사의 제자로 되어 있었다. 세종대왕이 내불전을 짓

육군사관학교 불교부 지도교수... 군승불교 창설 원조

기가 되었다. 그는 서산 대사의 훌륭한 가르침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스님의 가르침을 일본까지 와서 공부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조국익민지로 전락한 상황기에 유학생인 소산은 당시의 모든 율분과 열정을 불학 연찬에 쏟았다. 그가 훗날 평생에 걸쳐 서산 대사 연구와 조선불교 연구에 전념한 것은 모두 유학시절의 경험과 원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소산 우정상 교수님은 때로 텅 텅한 농주(農酒)에 얼굴이 불그스레 했지만, 6.25 한국전쟁 피난 때 일까지 안 나오는 이야기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더 자주 자리를 마련하고 모셨다.

“내가 이번에 큰 일 날 뻔 했거든. 불교문화연구소 간사로 있으면서 8만 대장경 영인본을 만들고 있는데, 무슨 글자가 잘못 된

있어 몇 번씩 교정하였는데 짧은 생각에 의해 고쳐놓고 보니 여러 선배들이 나를 야단친 거 있어.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절대로 사사로운 견해로 경전을 보지 않네.”

우정상 교수님은 경기대학교 부교수로 있으면서 동국대학교 교무과장을 역임하였는데, 이듬해(1955) 육군사관학교 불교부가 생기면서 지도교수가 되기도 하였다. 이것이 장차 10년 후에 군승불교가 창설되게 된 동기이다.

교수님은 불교문화연구소 간사, 중앙도서관장을 맡으면서 많은 저서를 남기게 되었는데, 특히 <조선전기 불교사상연구>와 <교양불교>, 고려대장경 영인본 편집은 불후의 작품이며, 공저로는 <한국불교사> <한국의 인간상>이 있다. <원각사탑파(圓覺寺塔婆)의 사상적 연구><이조불교의 호국사상연구>는 후배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 논문이다. 한번은 원각사 사지에 직접 가

고 비구니스님들을 청해 법문을 듣고 장악원에게 찬불가를 지으라 하며 손수 지은 찬불가곡 27종은 현재까지도 살아있다.

회통사에서 무학 대사와의 이야기는 일찍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조선조 500년 역사 가운데 거의 300년 역사가 안(불교), 밖(유교)이 다른 종교 신앙을 했으나 진짜 종교로서의 면목은 태조, 세종, 세조의 역사를 보아야 안다고 하였다.

이 태조가 성종 스님을 시켜 불교 내전과목을 편찬하게 한 것은 조선불교를 보다 새롭게 정립코자 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불교 내부의 갈등과 유생들의 불감은 성화 때문에 성사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그 때 조직된 교과목이 지금까지 사찰 강원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불교의 철학과 사상이 얼마나 깊고 견고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강조하였다.